

라디오와 함께 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 소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라디오 키즈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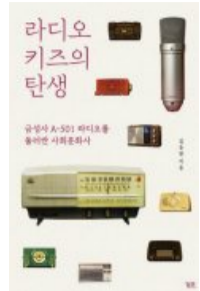
김동광 지음

다음은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것일까?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민초들의 사랑을 받았다. 한때 대중매체 가운데 왕좌를 차지했다. 바로 라디오다. 비록 지금은 TV나 유튜브, 유선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밀려났지만 여전히 라디오를 애청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는 8·15 해방, 미군정, 한국전쟁, 박정희 군사정권 등 현대사 격랑을 거치며 사회문화적 지위를 확보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하면서 라디오의 영향력을 절감했다. 군사정부 정당성을 비롯해 반공주의를 확산하는 데는 라디오만한 매체가 없었다. 당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펼쳐졌던 것은 그러한 이유다.

라디오가 처음 등장한 무렵은 세계 1, 2차 대전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공보수단으로 라디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물론 라디오의 파급력이 예전만 못하다 해서 라디오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



해 문화를 접한다. 아날로그 감성의 매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라디오 키즈의 탄생'은 라디오를 매개로 사회문화사를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고려대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를 펴낸 김동광 박사다. 그는 지난 시절 라디오와 함께 겪었던 추억과 기억을 소환한다.

저자는 라디오가 개발 특재의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삶은 피폐했지만 민초들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는 "노란사슴의 사나이"를 따라부르고 '정실홍실'이나 '하숙생' 같은 드라마를 들으면서 현실의 고달픔을 달랬다.

저자에 따르면 국산 최초 라디오는 '금성사 A-501'이다. 1호가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959년 이승만 정부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산 라디오 생산이라는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었다. '대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은 그런 일화이다. 이어 등장한 박정희에게 라디오는 정권의 정당성을 견인할 도구였다.

그러나 김수영 시인은 여러 작품에서 정부의 통제를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불온성 자체가 문화의 본질"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1968년 2월 27일 '조선일보'에 쓴 '실험적인 문화와 정치적 자유'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본인은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고 '모든 살아 있는 문하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본질이 꿈추

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문화의 본질로서의 불온성을 밝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동엽은 적극적으로 라디오를 받아들였다. 그는 1967년 동양라디오에서 '내 마음 끝까지'라는 코너를 진행했다. '깝데기는 가라'의 참여자인 신동엽이 라디오 코너를 진행했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대 지식인들이 새 매체인 라디오에 대해 취했던 태도가 상이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디오를 통해 시대의 문제점과 아울러 깊은 성찰, 대중과의 공감 등을 나눴다는 방증이다.

한편으로 라디오의 전성시대였던 60년대와 70년대는 라디오 자작(自作) 문화가 성행했다. 당시 세대들에게는 중요한 집단적 경험으로 작용했는데 공통의 문화적 체험은 동질성을 확인하는 기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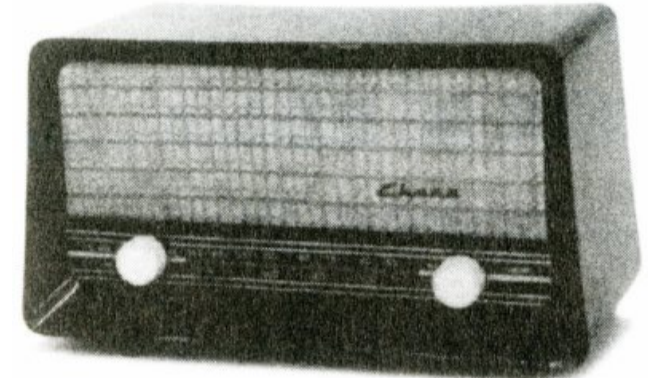
저자는 "응답하라 00"와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누렸던 것도 당시 인기 있던 전자제품, 영화, 노래 등 깨알같은 디테일을 구현해서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금성사 A-50 라디오, 이후 규격화된 전자 키트로 변환된 1980년대에 이르러까지 자작 문화는 동시대 문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는 의미다. 그렇듯 라디오는 그 시대의 기억과 함께했던 가장 감성적인 매체였다. 라디오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공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58년에 생산된 천우사 라디오



◀금성사 A-501 라디오

등대지기들

에마스토넥스 지음, 오숙은 옮김

서사는 크게 두 시간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1972년과 1992년, 세 사람의 등대지기와 그 아내들, 연인의 이야기가 중심 줄거리다. 과거 시간대에서는 등대 안 남자들이 저마다 등대에 대한 생각과 과거, 동료에 대한 감정을 펼쳐 보인다.

현재의 시간대에서는 과거의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 여자들이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진행된다. 한 사건을 매개로 여러 사람이 입을 통해 말하게 함으로써 책을 읽는 독자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다.

바다 위 타워 등대에서 세 사람의 증발 사건을 모티브로 서사화한 장편 '등대지기들'은 역동성과 현장감이 뛰어나다. 책은 2019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최고 화제작으로 소개돼 지금까지 28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저자는 영국 출신 에마 스토넥스로, 그녀는 이번 소설에서 '문학적 감수성과 장르적 쾌감이 절묘하게 혼재된 놀라운 데뷔작'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언급한대로 이번 작품은 1900년 영국 엘리모어섬에서 세 명의 등대지기가 사라진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 고립된 인간에게 찾아오는 낯설고도 친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70년대 등대 생활은 전염병 확산으로 거리를 두는 상황이 현재와 많이 닮아 있다. 지금의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의 전면에 흐르는 주제 의식은 '어두운 곳에 빛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이 슬픔과 원망을 던지고 희망을 밝힐 거라는 실마리는 미스터리를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전이시킨다.

<다산책방·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에밀 졸라의 진실

에밀 졸라 지음, 이진희 옮김

프랑스 자연주의 작가이자 당대를 대표하는 저널리스트, 1894년 드레퓀 사건이 일어나자 드레퓀 무죄를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소설가. 바로 에밀 졸라이다.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엑상프로방스로 이주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르봉 학교 시절에 문학 습작을 했으며 폴 세잔을 만나 우정을 나눴다.

대표작 '목로주정', '나나', '대지' 등으로 '19세기 문학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에밀 졸라의 삶과 문학을 다룬 책 '에밀 졸라의 진실'은 "진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작가의 철학을 집약하고 있다. 특히 그를 작가로서 이름을 알렸던 '마들렌 페라', '테레즈 라캉'은 그를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

저자인 에밀 졸라는 대표적인 인권유린이자 간첩 조작 사건인 드레퓀 사건에 침묵하지 않고 펜을 들었다. 당시 프랑스 전역을 휩쓴 반독일 정서와 극단적 애국주의, 반유대주의와 맞서는 것은 위태로웠다. 유대인 프랑스 장교 드레퓀가 적국인 독일에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된다. 과거 회귀 세력은 교묘하게 불안감을 악용했고 언론은 선동했다. 여기에 권력은 사건을 은폐하는 상황에서 진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 사건은 작가에게 진실을 밝히는 무거운 책무를 주었고 작가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고 밝히는 것, 그래서 올바른 사회를 실현하는 것, 이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앞장서는 것, 그것이 펜을 들게 했다."

그의 투쟁과 사유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실과 정의의 발걸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디북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팀 버튼의 위대한 세계'

이레나 말라 지음, 문주선 옮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비틀즈스', '크리스마스의 악몽', '가위손'

팀 버튼의 영화 세계에 한 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빠져 나오기 어렵다. 무궁무진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그의 작품은 기묘하면서도 따뜻하고 슬프면서도 우습다.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이야기와 때론 기괴하기까지 한 캐릭터, 수많은 발명품 등이 어우러진 그의 영화는 매력적이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이레나 말라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팀 버튼의 위대한 세계'는 팀 버튼 영화의 스토리와 미장센, 세계관, 페르소나 배우들을 총 망라한 '팀 버튼 백과사전'이다.

'크리스마스 악몽 제조자와 특별한 존재들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은 팀 버튼 감독의 세계를 하나의 '우주'로 설정,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그 우주의 행성과 운동이 만든 현상이 어떤 결과로 구현되었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책은 '환상이라는 거미줄 위의 거미처럼 관객을 사로잡는 이야기꾼'인 팀 버튼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가 연출한 작품들이 다루는 소재, 블랙유머, 암흑 에너지 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조니 뎀을 비롯해 아내이자 배우로 활약중인 헬레나 본햄 카터, 대디 드비토, 마이클 키튼 등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팀 버튼 감독과 '가위손'의 주인공 에드워드, '화성 침공'의 여왕의 그림 등 이레나 말라의 독특한 그림체와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독이하우스·3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